

칼빈의 교회개혁과 설교*

Calvin's Church Reformation and Preaching

이승진 (Lee, Seung-Jin)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교수 (설교학)



칼빈의 교회개혁은 그의 교회관에 기초하고 있다. 칼빈은 교회를 이 땅에서의 연약한 신자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 이해하였으며, 가시적인 측면과 불가시적인 측면 모두를 가진 기관으로 이해하였다. 지상의 가시적인 교회에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신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말씀 선포와 성례의 시행 때문이다. 칼빈의 교회론에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교회의 표지가 시행되는 사역을 수종드는 목회자이다. 그래서 칼빈의 교회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역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설교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성례전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성만찬 현장에서 신자는 영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와와의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며, 신자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시공간의 이동으로나 심리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구원사에 말씀을 듣는 신자가 영적으로 참여함으로 양자간의 만남이 일어난다. 이런 맥락에서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가 설교와 성만찬을 통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설교자는

먼저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칼빈의 설교를 통해서 제네바 회중 모두가 동일한 신관과 역사관 그리고 세계관을 가질 수 있었다.

제네바 교회가 중세 가톨릭의 잔재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거룩한 교회로 개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 역사의 맥락에서 현실세계를 이해하도록 일관되게 안내하는 칼빈의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이와 아울러 매주 목요일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활동을 통해서 칼빈은 강단 위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 아래 실제 신자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고 격려하는 목회 사역이 병행되었기 때문에 설교를 통한 칼빈의 교회개혁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한 설교의 가능성은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지향했던 칼빈의 설교와 강력한 컨시스토리 활동으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존 칼빈, 교회개혁, 설교, 구속사 성경해석, 본문 공동체, 권징

서 론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한국개신교는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의 탄생 5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 전통의 구심점을 상실하고 급변하는 시류 속에서 영적 정체성의 혼란감에 빠져 방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한국 개신교가 교회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려면 과거 16세기에 제네바에서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불의와 투쟁하면서 전 생애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결국 제네바를 ‘그리스도의 탁월한 학교’로 변화시키면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금자탑을 세웠던 칼빈의 교회개혁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진원지랄 수 있는 제네바에서 칼빈이 주도했던 교회개혁의 원동력 중의 하나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였음을 주목하면서 칼빈의 교회개혁과 설교의 연관성에 대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칼빈이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교회개혁을 추구할 때 염두에 두었던 그의 교회관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연약한 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 이해했던 칼빈의 교회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어서 이상적이고 불가시적인 교회와 현실의 불완전하고 가시적인 교회 사이의 간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칼빈이 혼신의 힘을 쏟았던 교회 개혁의 방편으로서의 설교의 특징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적인 성경해석에 기반한 설교와 공동의 인식론적인 기반위에 구축된 본문 공동체(textual community)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강단에서 지향했던 설교를 통한 교회개혁이 실제 신자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구현되도록 신자의 삶을 감독하고 보살피기 위한 권징의 역할에 대한 칼빈의 입장을 살펴볼 것이다. 말씀 선포와 권징의 시행이라는 양날의 검을 통해서 교회 개혁을 추구했던 칼빈의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서 오늘날 설교자들이 추구해야 할 교회 개혁의 올바른 이정표를 모색하고자 한다.¹

1. 칼빈의 교회관

칼빈으로부터 교회의 개혁에 대하여 배우고자 한다면 먼저 던져볼 질문은, 16세기 초 제네바의 현실 속에서 칼빈은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칼빈의 교회론에 대한 올바른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초판(1534)에서 최종판(1559)으로 시간이 가면서 발전되는 기독교강요 안의 여러 신학적인 주제들 중에서 교회론이 차지하고 있는 신학적인 좌표나 또는 여러 주석서들 속에서 발견되는 교회에 관한 논의

¹ 본고의 주된 연구 방법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1559)와 주석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기독교 강요』는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신복윤 외 3인 공역, 『기독교 강요』(1559)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를 참고하였다. 이후부터 각주에서는 『기독교 강요』, 1권 1장 1항은 *Inst.*, 1. 1. 1로 축약하여 표기한다.

(theory)를 고려해야 한다.² 이 뿐 아니라 16세기 초반 제네바의 역사적 및 정치적 상황 속에서 혹은 제네바 교회와 시의회 간의 긴장 관계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드러난 실제 교회의 모습(practice)³도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는 본고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기독교 강요』 최종판 IV권에 나타나는 교회론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인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는 『기독교 강요』의 전체 구조 속에서 볼 때 교회론은 앞의 I-III권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계시,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성령에 의한 구원의 권능과 적용을 다룬 다음에 마지막으로 IV권에서 신자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외적 수단들에 대하여 논의하는 가운데 다뤄진다.⁴ 여기에서 칼빈은 교회에 대한 논의를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1장)로부터 시작한 다음 이어서 ‘거짓 교회와 참 교회의 비교’(2장), ‘교회의 직분과 목회자’(3장), ‘고대 교회의 정치’(4장), ‘교황 제도 비판’(5-7장), ‘신조에 대한 교회의 권위’(8장)와 ‘교회 회의들과 그 권위’(9장)로 논의를 발전시킨다. 칼빈의 교회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로는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와 ‘가시적인 동시에 불가시적인 교회’, ‘교회의 표지로서의 말씀과 성찬’을 들 수 있다.

² 칼빈의 교회론을 연구한 Milner에 의하면 주석서의 변화와는 달리 『기독교강요』에서는 1543년판 이후에 교회에 관하여 새롭게 수정한 내용이 거의 없다고 한다. 아쉬운 점은 Milner는 그 이유나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Milner, Benjamin Charles, Jr.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Leiden: E. J. Brill, 1970), 15-30; McDonnell, Kilian, *John Calvin, the Church, and The Eucharist*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7), 56-60.

³ Otto Weber,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역 (서울: 합신대학원출판부, 2008), 54.

⁴ 칼빈의 신학에서 주목할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신학적인 주제를 전개시키는 올바른 교리의 순서(*ordo recti docendi*)이다. 베텔즈 교수에 의하면 기독교강요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인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을 피하고 참된 경건으로 인도한다고 한다. 베텔즈의 『기독교강요』의 신학적인 구조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 Ford Lewis Battles, *Analysis of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of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25ff. 또한 ‘올바른 교리의 순서’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Richard A. Muller, *The Unaccommodated Calvin: Studies in the Foundation of a Theological Tradition* (Oxford: Oxford Univ. Press, 2000), 112.

1.1.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칼빈에 따르면 교회는 우리 인간의 무지와 태만의 약점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함을 도와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마련하신 외적인 수단이다. 또 복음의 전파가 계속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보물과 같은 보조 수단을 자신의 교회에 맡기시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이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이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가르치게 하셨다”.⁵ 그런데 여기에서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외적인 수단으로서의 교회는,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개념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제 교회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기독교강요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가시적인 교회를 가리켜서 어머니라고 표현한다. “나의 현재 의도는 가시적 교회(the visible church)에 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까지라도 교회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이며, 또한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배우도록 하자.”

칼빈이 이렇게 가시적인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다음의 주장처럼 칼빈은 교회의 실제적인 정체성을 신자의 구원을 위하여 어머니가 감당하는 목회적인 기능에서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호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배우는 자로 지내는 동안 이 이 학교에서 떠날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⁶ 이러한 교회관은 교부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칼빈은 키프ريان(Cyprian, A.D. 200-256)의 입장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자는 반드시 교회가 그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⁷ ‘교회 없이는 죄의 용서도

⁵ *Inst.*, 4. 1. 1.

⁶ *Inst.*, 4. 1. 4.

⁷ *Inst.*, 4. 1. 4, n. 10에서 재인용.

없다’는 어거스틴(Aurelius Augustine A.D. 354-430)의 입장을 따라서 교회를 신자의 사죄와 구원을 위한 은혜로운 수단으로 이해하였다.⁸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구원을 받은 신자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은혜의 외적 수단으로서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성장하여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시적인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와 연결시켜 설명하는 칼빈의 견해가 『기독교강요』초판(1536)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처음에는 오히려 불가시적인 교회를 강조하다가 1539년판 이후에 가시적인 교회와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개념이 확립되고 있다는 것이다.⁹ 『기독교강요』의 초판(1536년)과 1539년판 사이에 칼빈의 교회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로는, 1차 제네바 목회와 이후의 추방,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에서의 목회와 이곳에서의 마틴 부처와의 교류를 들 수 있다. 프랑수와 방델(Francois Wendel)에 의하면 1536년에 칼빈은 교회에 관하여 불가시적이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면만을 중시하다가, 가시적인 공동체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던 마틴 부처와 접촉하면서 가시적인 교회에 관한 입장을 보완하여 정립할 수 있었다고 한다.¹⁰ 그래서 직접적인 인용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1539년 판과 1543년 판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시적인 교회에 대한 강조를 볼 때에는 부처의 요소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서 그 기원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¹¹

⁸ *Inst.*, 4. 1. 4.

⁹ 최윤배, “칼뱅의 ‘기독교강요’(1559)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 『칼빈연구』 제3집 (2005): 128.

¹⁰ 프랑수와 방델,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357.

¹¹ 방델, 166. 부처의 교회론이 칼빈의 교회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W. van't Spijker, “Bucer’s influence on Calvin: church and community,” in D. F. Wright, ed., *Martin Bucer: Reforming Church and Community* (Cambridge, 1994), 32-44.

1.2. 가시적인 동시에 불가시적인 교회

그래서 1539년 이후에 칼빈은 교회를 설명할 때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연합함을 고려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지상의 보조 수단들을 갖춘 가시적인 교회와,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전체로서의 불가시적인 교회의 두 측면을 모두 강조한다.

우리는 성경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말한다... 이 교회에는 양자로 삼으시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성령의 성화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지체가 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의 교회는 현재 지상에 살아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 이후 지금까지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은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세계 각지에 산재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때가 많다... 이 교회 안에는 선한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위선자들도 섞여 있다. 그 위선자들은 명칭과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우리는 또한 가시적 교회를 경외하고 그 교회와 계속 교통하도록 명령 받았다.¹²

칼빈이 교회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 또는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지 않지만 구별되는 한 교회의 두 가지 측면을 가리킨다.¹³ 그래서

¹² *Inst.*, 4. 1. 7.

¹³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두 종류의 교회로 완전히 분리될 수 없지만 구별 가능하다는 이중적인 논리로 교회론을 설명하는 칼빈의 신학 논리는 교회론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 전반에서 발견되는 주목할 만한 특징이기도 하다. 맥그래스에 의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기독교 강요』의 전체 논의 속에서 칼빈은 성육신에서 끌어올 수 있는 하나의 규범적인 모델을 활용한다고 한다. 성육신은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연합을 이루지만 혼합이 아니다. 성육신과 마찬가지로 성례전(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개하는 보이는 상징)이나 설교(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 그리고 권세(세속 권력과 영적 권력)에 대한 거듭되는 논의에서 어느 하나의 극단을 취하지 않고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distinctio sed non separatio)는 공식에 근거하는 기독교론에 거듭 반복해서 호소한다”(알리스터 맥그래스, 최재건 역, 『종교개혁사』 [서울: CLC, 2006], 298-301).

두 교회를 두 개의 원으로 묘사한다면 동일한 중심점이라도 그 위치가 달라서 서로 구별되지만 완전히 분리할 수 없고 서로 중첩되는 교집합을 갖는 두 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⁴ 이 두 교회의 중심축은 ‘교회의 기초로서의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시공간 속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교회로 부름 받은 신자의 시공간의 좌표와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원의 중심점의 위치가 다르면서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원이 만들어진다. 이 두 원 중의 하나인 무형교회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 속에서 완성된 교회라면, 또 다른 원인 유형교회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름 받아 모여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각각의 교회들이다.

또한 칼빈에게 교회는 말씀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기관으로서의 교회와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선포된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제도적인 면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믿음을 중심하여 생각하면 모임이라는 개념을 인식할 수 있다. 교회는 선포된 말씀으로 살지만 또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교회를 모임 또는 회중(congregation)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조직적인 기구(institution)로 이해하느냐, 그 어느 하나를 택하라고 요청받는다면, 오토가 판단하기에 칼빈은 하나님이 세운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에 선행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한다.¹⁵ 이렇게 교회의 기초가 인간의 창작품이나 모임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기 때문에, 칼빈은 구약시대를 포함하여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상에 항상 존재해 왔음을 한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¹⁶

¹⁴ G. S. M. Walker, “Calvin and the Church,”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16 (1963): 379-80; 이양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론” (신학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4), 40-41.

¹⁵ 오토 베버, 『칼빈의 교회론』, 66.

¹⁶ 오토 베버 역시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항상 교회론의 테두리 안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베버, 55-56.

1.3. 교회의 표지: 말씀과 성찬

그렇다면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불가시적인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또는 두 원의 유비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택의 원이 가시적인 교회 전체의 원을 포함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¹⁷ 하나님의 가시적인 보조 수단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칼빈의 교회론에서 교회의 표지(*notae ecclesiae*)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칼빈이 분리되지 않지만 구별되는 교회의 두 측면을 말할 때, 먼저 교회의 기초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언급하고, 이어서 불가시적인 교회와 대립되는 가시적인 교회 현실을 말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불가시적인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 현실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¹⁸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칼빈의 고민은 현존하는 가톨릭교회를 참 교회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칼빈이 판단하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서의 불가시적인 교회의 기준에 따라 가시적인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칼빈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관한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경청되며 성례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시행되는 것을 보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¹⁹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의 선택이며 교회의 설립 역시 하나님의 주도적인 권위에 의한 것이라면, 교회의 본질을 구성하는 토대 역시 하나님의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성례)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말씀과 성례가 교회를 확정짓는 표지인 이유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이를 경청하여 듣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여지고 결국 온전한 구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수단으로서 교회의 직분을 사용하실지라도, 교회 안에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원천은 전적으로

¹⁷ Walker, 379.

¹⁸ 방델, 360.

¹⁹ *Inst.*, 6. 1. 9-10.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는 겸손한 순종의 명에가 지워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이며 그리스도와 신자의 만남의 광장이다.²⁰ 그래서 교회개혁을 위한 교회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논의는 교회의 참된 표지로서의 말씀 선포와 경청으로서의 설교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2. 말씀을 통한 교회개혁

칼빈의 자화상은 주로 신학자, 목회자, 그리고 종교개혁자로 그려지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가르치며 선포하는 교사로 헌신된 종으로 여겼다.²¹ 칼빈에 의하면 교회는 선택받은 신자들의 연약성을 배려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상의 보조 수단들을 허락하셔서 세운 기관이며, 지상 교회의 개혁을 위한 결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이다. 이렇게 칼빈은 교회의 본질과 말씀 선포의 책임을 맡은 목회자의 역할에 대하여 분명한 신학적 입장을 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커(T. H. L. Park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로 최선을 다하여 주석과 설교를 통해서 말씀 선포의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다.²²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서의 설교를 통해서 칼빈이 추구했던 목표가 무엇이었고, 이것이 교회개혁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칼빈이 불가시적인 교회를 마음에 두면서도 가시적인 교회 현실 속에서 교회 개혁을 추구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도달하려했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신자와 그리스도

²⁰ Wilhelm Niesel. 이종성 역, 『칼뱅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84.

²¹ W. Stanford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of the Academy of Geneva,"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18 (1995): 1-21.

²² T. H. L. Parker, *John Calvin: A Biograph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5), 51.

와의 신비한 연합과 이를 통한 신자의 성화(sanctification)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2.1. 성례전적인 설교관

오토 베버에 의하면 칼빈의 교회론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설교이다.²³ 설교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신자들에게 그대로 전파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영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 대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선포 여부가 지상 교회의 진퇴를 결정하기 때문에, 칼빈의 교회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이 말씀의 선포와 청취에 관한 책임을 맡은 직분자에 대한 교리로 이어지며, 직분자에 대한 논의에서 부각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선포할 책임을 지는 목회자의 역할이다.²⁴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은 말씀 선포를 통해서 가시적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음성 속에서 자신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우리는 칼빈의 성례전적인 설교론(sacramental doctrine of preachin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례전적인 설교관이란 칼빈이 설교의 기능을 성례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설교가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매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의 성만찬이 단순한 시각적인 상징과 기호에 머무르지 않고 상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연결시키는 기능을 감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에 들리는 설교자의 설교 역시 단순한 설교자의 웅변에 머무르지 않고 그 설교자의 선포에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하

²³ 베버, 73.

²⁴ 베버, 86. Cf. Ian S. Palmer, "The Authority and Doctrine of Scripture in the Thought of John Calvin," *The Evangelical Quarterly* 49 (1977): 37.

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 현장에 실제로 하나님 임재하여 말씀하도록 하는 기능을 감당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 설교자의 설교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개하는 성례전이라는 뜻이다. 칼빈의 설교에서 발견되는 성례전적인 관점은 오래 전부터 여러 설교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칼빈의 설교와 성만찬의 성례전적인 공통점에 주목했던 로널드 웰레스(Richard Wallace, 1953)²⁵나 에베소서의 설교를 분석한 리차드 스토페르(Richard Stauffer, 1978),²⁶ 파커(T.H.L Parker, 1991),²⁷ 존 레이스(John H. Leith)²⁸의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피터 워드(Peter Ward) 역시 칼빈의 핵심적인 신학개념으로 자리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나 ‘그리스도와와의 신비한 연합’이 단순히 칼빈의 신학적인 사색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설교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²⁹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칼빈은 설교를 신자의 구원을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임재의 성례(a sacrament of the saving presence of God)로 이해했다고 한다.

2.2. 설교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설교를 성례전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뜻은,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베풀어지는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함께 역사함으로 그곳에 모인 신자들을 떡과 포도주의 표식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연합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

²⁵ 로널드 웰레스, 정장복 역,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 (서울: 장신출판부, 1996), 139ff.

²⁶ 리차드 스토페르, 박진택 역, 『칼빈의 설교학』 (서울: 나단, 1990), 64-65.

²⁷ T. H. L. 파커, 김남준 역, 『칼빈과 설교』 (서울: 솔로몬, 1993), 43: “설교와 성례전은 하나의 의식을 이루는 두 부분이고 성례전에 대한 시각은 설교관을 결정한다.”

²⁸ John H. Leith, “Calvin’s Doctrine of the Proclamation of the Word and Its Significance for Today in the Light of Recent Research,” *Review and Expositor* 86/1 (Winter, 1989): 31-32.

²⁹ Peter Ward, “Coming to Sermon: the Practice of Doctrine in the Preaching of John Calvin,”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58/3 (2005): 321.

면 말씀이 선포되고 성만찬이 시행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임재하시며 신자와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은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질문은 로마 카톨릭의 화체설(化體說, transubstantiation)에 대항하여 쾰빙글리의 기념설(記念說, memorialism)과 칼빈의 영적 임재설(spiritual presence) 그리고 루터의 공재설(共在說, consubstantiation) 사이에 벌어졌던 유명한 성만찬 논쟁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이를 다시 다루는 것은 본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며 다만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거하시는 하늘의 그리스도의 인성이 지상의 성만찬의 여러 자리에 여럿으로 나뉘어 쪼개져서 범신론적인 의미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자가 영적으로 하늘로 올리워져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모든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Short Treatise on the Lord's Supper)에서 칼빈은 성만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모든 육욕적인 상상들을 차단해야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려 썩어질 물질 아래 가두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려야만 한다(sursum corda)”.³⁰ 성만찬이 신자를 하늘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때, 칼빈에게 던져볼 질문은 이 기능을 과연 성만찬만 할 수 있고 설교는 제외되거나 그보다 덜한 기능, 예를 들어 지상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거나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떠올려 보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았을까?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기독교강요에서 성례에 대한 칼빈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성례에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복음 선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으로 세상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한 족장들에게 어

³⁰ John Calvin, “Short Treatise on the Lord's Supper,” i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tr. J. K. S. Reid (London: SCM Press, 1954), 142-66.

편 표징을 주실 때에 그 표징과 교훈은 서로 분리시킬 수 없게 연결되어있었고, 이 교훈이 없으면 우리의 감각 기관은 단순히 표징만을 볼 뿐이어서 어리벙벙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가 분명한 음성으로 선포하는 그 약속이 신자들의 손을 잡고 표징이 가리키며 지시하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³¹

설교 현장에서 목사가 분명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과 성만찬은 신자들의 손을 잡고서 함께 이 표징이 가리키며 지시하는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설교와 성례를 통하여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는 자리는 범신론적인 관점에서 단순히 ‘하늘의 어느 곳’이라는 공간적인 장소에서의 양자 간의 결합도 아니고 심리적인 관점에서 신자 내면에 있는 신적인 존재에 대한 심리적 깨달음도 아니라, 설교를 들은 신자가 삼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객관적인 구원의 서정 전체에 접목되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객관적인 구원사가 신자와 개 교회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고 결합되어 개개의 교회와 신자들이 객관적인 구원사에 편입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신자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³² 그래서 지상에 남아 있는 신자는 아직 죄악의 권세를 모두 이기지 못했지만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구원 역사 안에서 종말의 승리를 앞당겨 누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만으로 하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³³

³¹ *Inst.*, 4. 14. 4.

³² 칼빈주의 전통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완성(*redemption accomplished*)이 어떻게 개교회 안에서 신자 개개인의 것으로 적용(*redemption applied*)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 John Murray,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Grand Rapids: Eerdmans, reprint, 1988). 26ff.

³³ *Inst.*, 2. 16. 16.

3. 교회개혁과 설교전략

설교를 듣는 가운데 개개인 신자와 교회 구성원 전체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자신과 세계와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려면, 그런 설교 메시지 이전에 먼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개혁을 위한 칼빈의 설교전략은 이를 위한 토대로서의 성경해석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3.1. 성경해석과 교회개혁의 토대

칼빈의 성경해석 원리에 대해서 연구한 크라우스(Hans-Joachim Kraus)는 칼빈에게서 발견되는 다음의 8가지 해석 원칙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① 명료함과 간결함의 원칙(the principle of clarity and brevity), ② 저자의 의도에 집중하기, ③ 역사적 지리적 정황을 고려하기, ④ 풍유적 해석이 아니라 본문 안에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⑤ 문맥을 중시하기,³⁴ ⑥ 저자의 의도 안에서 문자적 의미의 한계를 극복하기(*Inst.* II, 8. 8) ⑦ 비유는 비유로 해석하기, ⑧ 그리스도 중심의 신, 구약의 통일성.³⁵ 칼빈에게서 발견되는 이러한 여러 해석 방법들 중에서³⁶ 특히 그만의 장점은 역

³⁴ 예를 들어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을 주해할 때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된 것에 의존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후 관계를 함께 관찰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 구절에 대한 선지자의 의도를 이해하지도 않은 채 이 말을 분리시킨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고 하면서 본문의 문맥에 따른 해석을 강조한다. *Comm. on Jer.* 17:9, 10.

³⁵ Hans-Joachim Kraus, “Calvin’s Exegetical Principles,” 12-18.

³⁶ 칼빈의 성경해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Hans-Joachim Kraus, “Calvin’s Exegetical Principles,” *Interpretation* 31 (1977): 9-18; Richard Gamble, “*Brevitas et Facilitas*: Towards an understanding of Calvin’s Hermeneutic,”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7 (1985): 1-17; Richard Gamble, “Exposition and Method in Calvi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9 (1987): 159-65; S. E. Schreiner, *Where Shall Wisdom Be Found: Calvin’s Exegesis of Job from Medieval and Modern Perspective*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94), 45ff.; D. L.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95), 56-81.

사적³⁷ 및 문맥적인 해석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것과, 본문의 핵심적인 의미에 가장 빠르게 접근하기 위한 명료함과 간결함(*Brevitas et Facilitas*)의 원칙을 고집했다는³⁸ 것이다. 하지만 이상의 다양한 해석방법 중에서 앞에서 칼빈의 교회관과 성례전적인 설교관에서 주목했던 ‘설교를 통한 지상의 신자와 천상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해석 방법으로서, 구약과 신약 전체에 대한 일관성 있는 구속사적인 성경해석 방법을 들 수 있다.

칼빈에게 성경해석의 중요한 목적은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 목적에서 이탈하면 평생을 연구하고 노력하더라도 결코 참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³⁹ 여기에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의미는, 모든 성경 본문의 단어나 구절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나 성품과 직접 연결시켜서 우화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보다는 하나님은 구약의 창조로부터 신약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구속 역사 속에서 비록 시대마다 그 형식이 달리 나타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편무적인 언약(unilateral covenant), 또는 복음의 언약(*Evangelii foedus*)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통일성 안에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구속 역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⁴⁰ 당연히 구약 전체를 신약의 빛 아래서 특히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아래서 그리고 그 구속 사역의 수혜자인 교회의 순종의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발생한 커다란 역사적인 사건들은 그 자체만으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역사적 기

³⁷ D. L.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56-81.

³⁸ Richard Gamble, “*Brevitas et Facilitas*: Towards an understanding of Calvin’s Hermeneutic,”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7 (1985): 1-17.

³⁹ *Comm. on John* 5:39=CO, 47:125.

⁴⁰ *Inst.*, 2. 10. 2-5.

록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과거에 발생한 구속지향적인 사건들은 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의 교회가 그들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인도 아래 각각 경험하는 영원한 구원의 도리들을 미리 모형(type)이나 범례적인 패턴(paradigmatic pattern)을 제시하는 까닭에 오늘의 신자들에게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윗의 생애는 과거에 실존했던 다윗 개인의 생애나 정치적인 투쟁의 역사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겪으실 고난과 영광을 미리 예표하고 있으며, “다윗은 특별히 고통을 느끼는 부상을 입었을 때 슬퍼하였지만, 그 자신의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전체 몸을 나타냈다”고 해석했다.⁴¹ 그래서 칼빈이 제시한 그리스도의 구속사 중심의 해석을 따른다면, 다윗의 개인적인 시련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수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시인 시련을 예표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칼빈은 성경 본문의 역사적인 의미에 관심을 기울일 때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중요시하지만,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해설에 머무르지 않고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서 일관된 언약의 보증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미리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며⁴²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 속에서 함께 부름을 받은 오늘의 교회 신자들의 순종의 삶의 모범을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 속에서 찾아내려고 했다.

3.2. 구속사관과 본문공동체

이런 의미에서 칼빈은 창조, 타락, 아브라함의 선택과 이스라엘의 건국과 실패,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탄생과 재림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역사와,

⁴¹ Calvin, *Comm. on Ps.* 109:1=CO, 32:147.

⁴² Stephen Edmondson, “Christ and History: Hermeneutical Convergence in Calvin and Its Challenge to Biblical Theology,” *Modern Theology* 21/1 (Jan, 2005): 24.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에서 정점에 도달하는 구속사 또는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의 역사,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뻗어 있는 지상의 교회의 역사를 서로 별개의 것들로 생각하지 않고 모두 하나의 범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발생한 사건들은 비록 그 시대적인 형식은 다를지라도 본질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에 관한 도리와 교훈을 미리 계시하는 것이며, 그 교훈들은 과거의 신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오늘의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교훈들이라는 것이다. 즉 성경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⁴³가 본문 밖의 역사적인 지시대상(실제 발생한 사건들)이나 종교적인 적용과 하나로 연결된 것으로 이해했다는 말이다. 성경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는 당연한 주장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스 프라이(Hans Frei)가 분석한 바와 같이 계몽주의와 역사비평적인 성경해석학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문자적인 의미는 더 이상 역사적인 지시대상과 연결되지 못하고 서로가 분리되면서 성경 해석 현장에 다음 두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났다. 첫째는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 내러티브의 진리는 본문에 의해서 형성되는 사실적인 실체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밖의 독자의 상상 속이나 어디엔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둘째로 성경 독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본문에 의해서 구술되는 역사적인 실체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칸트가 이 세상을 과학의 영역처럼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되고 경험 가능한 현상계(phenomena)와 예

⁴³ 성경해석학에서 문자적인 의미(literal meaning)는 주로 상징적인 의미(symbolic meaning)와 구분하여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문자적인 의미는 문자가 어떤 그대로 가리키는 지시대상을 떠올리는 부호로 받아들일 때의 의미(ex, 나무 십자가-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뜻하며, 상징적인 의미는 문자의 부호가 가리키는 지시대상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다른 의미를 연상시키는 의미를 뜻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한스 프라이(Hans Frei)가 문자적인 독법(literal reading)을 본문이 본문 밖의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키고 그대로 서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본문을 읽는 사실주의적인 독법(realistic reading)과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입장을 따른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Hans W. Frei, *The Eclipse of Biblical Narrative: A Study in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y Hermeneutics* (London: Yale Univ. Press, 1974), 1-3.

수 그리스도나 자유처럼 오감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본체계(noumena)로 구분하고, 현상계는 사실판단의 대상으로, 본체계는 가치 판단과 선택의 대상으로 구분해버린 이후로,⁴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성경은 더 이상 자신과 역사의 출발점과 종착점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규범과 준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일종의 더 바람직하고 더 도덕적인 삶을 위하여 다양한 가치들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가치판단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거의 구원 사건에 대한 기록이자 미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예언으로서의 성경은 더 이상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권위를 잃고 말 것이다.

하지만 한스 프라이(Hans Frei)에 의하면, 칼빈은 오늘날 역사비평적인 전제를 가진 해석자들처럼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와, 그 문자가 가리키는 역사적인 지시대상, 그리고 본문의 의미에 대한 종교적인 적용이 서로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⁴⁵ 오히려 성경의 사실주의적인 서사(realistic narrative)에 대한 독법에서는, 본문의 주해적인 의미가 그대로 역사적인 지시대상과 연결되고 또 이 역사적인 지시대상 속에서 과거의 사건과 현재 신자의 적용은 그대로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다.⁴⁶ 칼빈의 성경해석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면 바로 사실주의적인 성경 서사(realistic biblical narrative)의 독특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실주의적인 서사가 지향하는 대로 독자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조지 스트룹(George Stroup)은 현대적인 개념의 내러티브 신학자(narrative theologian)라는 용어를 칼빈에게 적용시

44 칸트의 현상계와 본체계의 구분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Immanuel Kant, 신옥희 역, 『이성의 한계 안에서 종교』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1984). 64ff.

45 Hans W. Frei, *The Eclipse of Biblical Narrative: A Study in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y Hermeneutics* (London: Yale Univ. Press, 1974), 20-26.

46 한스 프라이는 성경의 구속사 내러티브는 성경 안에 담긴 가치관을 독자에게 그대로 강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먼저 주목한 사람으로서 에릭 아우얼바하(Eric Auerbach)를 든다. 아우얼바하는 호머의 오딧세이와 구약성경의 서사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고 한다. “호머처럼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몇 시간 동안 우리 자신의 실재를 잊는 방법을 찾는 것과는 판판으로, 그것은 우리의 실재를 극복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그 세계에 맞추어야 하고 우리 자신이 그 보편적인 역사구조의 구성요소들임을 느껴야 한다.” Frei, 3에서 재인용.

키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본문과 역사적인 지시대상, 그리고 종교적인 적용을 하나의 범주로 이해했다는 의미에서 그를 내러티브 신학자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⁴⁷ 칼빈은 성경을 시대를 초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본문의 의미는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 그 자체였으며 본문의 진리는 본문에 의하여 구성되는 실체이지 본문 밖에 별도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교회개혁과 관련하여 칼빈의 구속사적인 성경해석에서 주목할 점은, 그의 해석 전략은 제네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서로 경쟁하는 다양한 가치관들 중의 하나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설교를 통해서 제네바 전체 교회 신자들이 그대로 공유한 가치관이며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는 제네바 교회의 경건을 지탱하는 일종의 인지적인 하부구조(cognitive infrastructure)로 작용하였다. 말하자면 제네바 교회는 칼빈의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확인되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성경 역사가 자신들이 실제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의 역사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역사의 연장선상에 교회의 역사가 놓여 있다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대는 성경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제네바 교회를 개혁해가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그래서 칼빈의 독특한 해석방법과 신앙 공동체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워드 홀더(R. Ward Holder)는 성경에 대한 칼빈의 독특한 해석 관점이 제네바 교회의 형성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보면서 양자 간의 상호 관계를 브라이언 스톡(Brian Stock)의 ‘본문 공동체’(textual community),⁴⁸ 또는 폴 리쾨르의 ‘담론 공동체’(community of discourse)⁴⁹로 설명한다. 브

⁴⁷ George W. Stroup, “Narrative in Calvin’s Hermeneutic,” in *John Calvin and the Church: A Prism of Reform*, Timothy George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0), 160-63.

⁴⁸ Brian Stock, *Listening for the Text: On the Uses of the Pas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0), 37.

⁴⁹ 워드 홀더(R. Ward Holder)에 의하면 담론 공동체(communitiy of discourse)는 가다머(Hans-Georg Gadamer)와 리쾨르(Paul Ricoeur)에게서 유래한 용어로서 특정 본문에 대한 해석

라이언 스톡이 말하는 ‘본문 공동체’란 성경과 해석자,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어 해석자의 본문 해석이 공동체 형성의 토대로 작용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이 공동체 안에서 신자 개개인은 설령 공동체로 가입하기 이전에는 성경에 대해서 또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의 지속적인 해석과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지시하는 방향이 곧 해당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과 일치함을 서서히 깨달으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자신의 개인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성경과 성경에 대한 해석자의 독특한 해석 관점, 그리고 해석자의 해석 작업을 통해서 정리되는 공통의 신앙이 결국은 신자 개개인을 전체 공동체와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이런 이유로 워드 홀더는 칼빈의 제네바 교회를 가리켜서 ‘본문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칼빈이 ‘본문 공동체’란 용어를 직접 사용한 적은 없다. 하지만 그는 지역 교회 안에서는 특정한 교리나 해석 관점에 대한 일치된 이해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오토 베버에 의하면 칼빈은 지상의 교회가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면서도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한다.

지역 교회들이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보편적인 신앙고백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다른 가르침을 따를 수 있고 서로 관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개신교의 교회들이 개별적인 문제를 두고는 각자가 다른 교리를 따를 수도 있다고 시인하였으며, 칼빈 자신이 실은 이 교리들(예정론)의 입장을 소개하기를 꺼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칼빈은 지역 교회 안에 있는 교리의 차이는 용납하지 않고 이에 대항하여 투쟁했다. 그는 자기가 일하는 제네바 시에서는 엄격했다.⁵⁰

과 이해를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공동체의 역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용어는 성경의 신적인 기원과 해석에 대한 성령의 주도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워드 홀더는 ‘담론 공동체’보다는 ‘본문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R. Ward Holder, “*Ecclesia, Legenda atque Intelligenda Scriptura: The Church as Discerning Community in Calvin’s Hermeneutic*,” *Calvin Theological Journal* 36 (2001): 277.

칼빈이 보편적인 신앙 고백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다른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고 관용하면서도, 지역 교회 안에 있는 교리의 차이에 대해서는 엄격했던 이유가 있다. “교회의 하나됨은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교리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⁵¹ 칼빈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 역사로 해석한 것이 결국 제네바 교회의 개혁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감당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제네바 교회는 본문 공동체로서 성경과 해석자, 그리고 공동체가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어 자신들이 몸을 담고 살아가는 교회의 역사를 성경이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에 온전히 일치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칼빈의 설교에서 주목할 만한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관과 ‘본문 공동체’ 지향적인 성경해석은, 당연히 창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theatrum gloriae dei)로 이해하면서 자신의 성경해석과 신학적인 논의, 설교, 그리고 목회의 모든 노력들을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방면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온 세계가 그의 고구였으며 삶의 분야에서 간과된 부분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평가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⁵² 칼빈에게서 발견되는 말씀을 통한 교회개혁의 기관차를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세우신 교회에 대한 신앙과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선포로서의 성경적인 설교가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의 믿음에서 우리나라 교회 개혁이란 기관차의 외피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세계관(theocentric world view)이었으며, 제네바 교회 신자들은 바로 이러한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에 근거하여 사도 시대 이후 가장 탁월한 그리스

⁵⁰ 베버, 135-36.

⁵¹ 베버, 138.

⁵² John Hesselink, *On Being Reforme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Common Misunderstandings* (Ann Arbor, MI: Servant Books, 1983), 43.

도의 학교를 이룩할 수 있었다.

4. 권징을 통한 교회 개혁

한편 칼빈의 목회 사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설교를 통한 교회개혁의 실재를 추적하다보면, 마치 칼빈은 강단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설교만 했었고 그 결과 칼빈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 제네바 교회의 개혁이 자동적으로 이뤄지고 신자들의 거룩한 삶이 자동적으로 뒤따랐던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그래서 말씀의 올바른 선포와 성례의 정당한 시행만으로 지상의 가시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신자들로 이루어진 완전한 교회로 변화하는지,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위해서는 더 이상 다른 보조 수단들은 필요 없는지 칼빈에게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칼빈은 결코 설교 하나로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설교만능주의를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네바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헌신했던 칼빈의 입장에서는 설교와 성례 뿐만 아니라 권징(discipline)의 시행 역시 중요한 관심사였으며 권징의 시행을 위한 근거로서의 교회규칙의 제정과 승인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여겼기 때문이다.⁵³

파렐의 부름을 받고 제네바에 도착한 칼빈이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처음부터 노력을 기울였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서의 설교 사역만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 조직의 기초로서의 일련의 신앙규칙들(성찬식, 시편 찬송, 청소년 교육, 결혼법)을 제정한 “제네바 교회 조직과 예배에 관한 규정”(1537)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었다. 이 규정에는 신자 각자의 삶이 거룩한 성찬식에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교회가

⁵³ 칼빈은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토대로서 말씀 선포와 성례의 시행뿐만 아니라 교회 규범에 근거한 권징의 시행을 중요시하였다. 하지만 칼빈은 부처와 달리 권징을 다만 교회의 표지가 아니라 성도의 표지로 이해하였다. Cf. Robert White, “Oil and Vinegar: Calvin on Church Discipline,”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38 (1985): 25-40. 칼빈이 성도의 표지에 포함시킨 것은 신앙의 고백(confession of faith)과 삶의 모범(example of life), 그리고 성례에의 참여(partaking of the sacrament)이다. *Inst.*, 4. 1. 8.

권고하거나 또는 스스로의 죄를 자백하고 삶의 태도를 고칠 때까지 출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있다. 이후 목회자의 복장에 대한 시의회와 칼빈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1538년의 부활절 설교권을 박탈당하고 제네바를 떠나 스트라스부르그로 옮겼다가 다시 1541년 9월에 다시 제네바로 돌아올 때에도 칼빈이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었던 것도 교회개혁의 토대가 되는 『교회 법령』을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문제였다. 1541년 11월 20일 개정된 안건이 마침내 시의회에서 채택되어 『교회 법령』(*Ecclesiastical Ordinances of the Church of Geneva*)이란 이름으로 공포되었고 이 법령으로부터 제네바 교회 개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⁵⁴

권징에 대한 칼빈의 확고한 태도는 시의회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1541년 교회법령과 이 법령에 근거하여 교인들을 대상으로 감독할 기구로서의 제네바 컨시스토리(혹은 당회, consistory)의 권한을 규정한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칼빈의 신념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자들의 실제 삶을 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 안에 세운 권징 감독 기구이다. 이 기구는 마태복음 18:7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제네바 목사회(the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소속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 장로들은 매년 2월에 치뤄지는 선거를 통해서 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자들 중에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인품을 지닌 자들이었다. 제네바 컨시스토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네바 교회 신자들의 실제 삶을 감독하면서 강단 위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강단 아래 신자들의 삶 소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과 순종이 서로 일치되도록 헌신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로버트 킹던(Robert M. Kingdon) 일행이 발굴해 낸 제네바 컨시스토리 회의록(당회록)에 잘 나타나 있다.⁵⁵ 컨시스토리는 매주 목요일 아침에 열렸으며 주로 제네바 교회 신자 개개

⁵⁴ Philip E. Hughes, ed., *The Register of the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66), 35-49.
 방델,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87.

⁵⁵ Robert M. Kingdon, ed.,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1542-1544*, vol. 1 (Grand Rapids: Eerdmans, 2000), 35ff.

인의 신앙윤리적인 문제(예배나 성찬식 참석 여부, 기도 생활)로부터 시작하여 가정의 윤리(결혼, 이혼, 간음, 간통, 혼외출산, 폭행), 교회의 질서(주일 성수, 성찬식, 성상 숭배, 기도 및 주기도문 교육, 성경, 로마 가톨릭의 절기를 따르는지의 여부), 그리고 사회적인 윤리(미신, 고리대금, 도박, 게임, 놀이, 우상, 증오, 추문, 말다툼)까지를 포함하여 신자의 실제 삶의 전체 영역을 그 감독의 대상으로 삼았다. 신자의 윤리적인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컨시스토리의 역할은 법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기보다는 훈계하거나 실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법적인 강제력이 집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⁵⁶

제네바 권징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크게는 성만찬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교와 같은 강제력이 뒤따르는 권징을 시행하는 주체가 교회인가, 아니면 당시 시의회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인가 하는 권징 시행의 주체 문제와 권징의 기능적인 한계에 대한 입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교회의 질서와 신자의 도덕적인 삶을 이끌어내기 위한 권징의 역할과 그 기능의 한계와 관련하여 칼빈은 부처와 입장을 달리하였다. 부처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가 권징을 통해서 태함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불신자들을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를 이론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권징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실제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⁵⁷ 출교를 통하여 참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잘못된 오류와 불완전성 속에서 계속 방황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칼빈은 교회의 거룩성을 “하루하루 전진하지만 이 땅에서 교회는 아직 거룩이라는 목표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다”는 한계와 결부시켜 이해했다.⁵⁸ 그래서 지상의 교회의 역할과 임무는 구원받은 신자의 거룩과 성화를 목표로 삼고 계속 전진해

⁵⁶ Lambert, Thomas Austine, “Preaching, Praying and Policing the Reform in Sixteenth-Century Geneva” (Ph. D dissertation Univ. of Wisconsin-Madison, 1998), 250.

⁵⁷ 베버, 59.

⁵⁸ *Inst.*, 6. 1. 17.

가는 것이다. 비록 거룩이라는 완전한 목표에 도달하지는 않았고 또 권징이나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신자와 불신자를 완전히 구별해 내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참된 신자는 “신앙의 고백과 삶의 모범, 그리고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와 더불어 같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하는”⁵⁹ 공동체여야 한다고 확신했고 이런 확신에 근거하여 교회 개혁을 위한 권징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교회와 국가 중에서 신자들에게 권징을 시행할 권위는 주체는 어느 쪽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칼빈은 루터와 입장을 달리했다. 루터는 신자의 경건 생활을 통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Gesetz)을 복음과 대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법의 권위는 존중하면서도 교회의 질서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에서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적절히 집행되지만 하면, 교회 개혁을 위한 그 밖의 다른 필요한 것은 교회가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교회 당국의 통치를 통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⁶⁰ 신자의 실제 경건 생활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정부 당국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가 앞장서서 질서의 변혁을 꾀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하지만 칼빈은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모여들어 세워진 교회 질서 속에서 신자는 개개인의 단순한 집합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윤리 공동체로 존재하며, 이러한 교회 질서의 유지는 정부 당국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를 경청하는 교회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보았다.⁶¹ 하나님을 향한 신자들의 신앙의 실천과 교회의 질서와 순결의 보호 및 유지는 세상 권력자들의 감독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지상 교회의 고유한 책임이라는 것이다.⁶² 그래서

⁵⁹ *Inst.*, 6. 1. 8.

⁶⁰ 베버, 24.

⁶¹ 베버, 25.

칼빈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의 뜻과 의지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고 선포하는 교회의 고유한 책임이라고 확신하였고, 신자 개인의 성만찬 참여 여부를 포함한 권징의 권한은 오직 당회에게 귀속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리고 1541년 이후부터 1561년 11월 교회 법령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칼빈과 시의회와 오랫동안 갈등의 불씨가 되었던 교회의 권징의 권한 소유 문제가 교회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결론 내려질 때까지, 칼빈은 교회가 권징의 권한을 확보하여 강단 위에서 선포된 말씀이 실제 신자의 삶 속에서 그대로 구현되도록 감독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제네바를 사도 시대 이후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의 학교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5. 결 론

본고에서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500여 년 전 중세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 영광을 반사해야 할 교회마저 거짓과 비진리로 변질된 상황에서 설교와 권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개혁을 이뤄냈던 칼빈의 교회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칼빈은 교회를 하나님이 연약한 신자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지상에 세운 기관으로 이해하였으며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목회자를 세우셨음을 확신하였으며,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직접 말씀하심으로 신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일치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설교자는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설교자와 회중이 설교를 통하여 함께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를 공유할 때 이러한 공동의 인식론적인 하부구조가 교회 개혁과 신앙 공동체 형성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끝으로 칼빈은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강단 아래에서 신자들이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권징권의 시행을 위해서도 평생 혼신의 힘을 쏟았음을 살펴보았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출처가 의심스럽고 추구하는 지향점마저 우려할만한 다양한 사상과 풍조에 휩쓸려 종교개혁의 전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을 띄고 있다. 교회개혁이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에서 칼빈의 교회개혁이 한국교회의 개혁에 귀중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이양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론”. 신학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4.
- 최윤배. “갈벡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 『칼빈연구』 Vol. 3.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 Battles, Ford Lewis. *Analysis of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of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 Calvin, John. “Short Treatise on the Lord’ Supper.” I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Trans. by J. K. S. Reid. London: SCM Press, 1954.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신복윤 외 3인 공역. 『기독교 교강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 Edmondson, Stephen. “Christ and History: Hermeneutical Convergence in Calvin and Its Challenge to Biblical Theology.” *Modern Theology* 21/1 (Jan. 2005): 3-35.
- Frei, Hans W. *The Eclipse of Biblical Narrative: A Study in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y Hermeneutics*. London: Yale Univ. Press, 1974.
- Gamble, Richard. “*Brevitas et Facilitas*: Towards an understanding of Calvin’s Hermeneutic.”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7 (1985): 1-17.
- Gamble, Richard. “Exposition and Method in Calvi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9 (1987): 153-65.
- Hesselink, John. *On Being Reforme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Common Misunderstandings*. Ann Arbor, MI: Servant Books, 1983.
- Holder, R. Ward. “*Ecclesia, Legenda atque Intelligenda Scriptura*: The Church as Discerning Community in Calvin’s Hermeneutic.” *Calvin Theological*

Journal 36 (2001): 270-89.

Hughes, Philip E. (Ed.) *The Register of the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66.

Kant, Immanuel.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ssen vernunft*. 신옥희 역.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1984.

Kingdon, Robert M. (Ed.)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1542-1544*. Vol. 1. Grand Rapids: Eerdmans, 2000.

Kraus, Hans-Joachim. "Calvin's Exegetical Principles." *Interpretation* 31 (1977): 8-18.

Lambert, Thomas Austine. "Preaching, Praying and Policing the Reform in Sixteenth-Century Geneva." Ph. D dissertation. Univ. of Wisconsin-Madison, 1998.

Leith, 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Proclamation of the Word and Its significance for today in the Light of Recent Research." *Review and Expositor* 86/1 (Winter, 1989): 29-44.

McDonnel, Kilian. *John Calvin, the Church, and The Eucharist*.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7.

McGrath, Alister. 최재건 역. 『종교개혁사』. 서울: CLC, 2006.

Milner, Benjamin Charles, Jr.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Leiden: E. J. Brill, 1970.

Muller, Richard A. *The Unaccommodated Calvin: Studies in the Foundation of a Theological Tradition*. Oxford: Oxford Univ. Press, 2000.

Murray, John.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Grand Rapids: Eerdmans, reprint, 1988.

Niesel, Wilhelm. 이종성 역. 『칼뱅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Palmer, Ian S. "The Authority and Doctrine of Scripture in the Thought of John Calvin." *The Evangelical Quarterly* 49 (1977): 30-39.

- Parker, T. H. L. 김남준 역. 『칼빈과 설교』. 서울: 솔로몬, 1993.
- Parker, T. H. L. *John Calvin: A Biograph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5.
- Puckett, D. L.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95.
- Reid, W. Stanford. "Calvin and the Founding of the Academy of Geneva."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18 (1995): 1-21.
- Schreiner, S. E. *Where Shall Wisdom Be Found: Calvin's Exegesis of Job from Medieval and Modern Perspective*.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94.
- Spijker, W. van't. "Bucer's influence on Calvin: Church and Community." In Wright D. F. (Ed.) *Martin Bucer: Reforming Church and Community*. London: Cambridge, 1994.
- Stauffer, Richard. 박건택 역. 『칼빈의 설교학』. 서울: 나단, 1990.
- Stock, Brian. *Listening for the Text: On the Uses of the Past*.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0.
- Stroup, George W. "Narrative in Calvin's Hermeneutic." In *John Calvin and the Church: A Prism of Reform*. Ed. George, Timoth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0.
- Walker, G. S. M. "Calvin and the Church."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16(1963): 371-389.
- Wallace, S. Ronald. 정장복 역.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 서울: 장신출판부, 1996.
- Ward, Peter. "Coming to Sermon: The Practice of Doctrine in the Preaching of John Calvin."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58/3 (2005): 319-32.
- Weber, Otto.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서울: 합신대학원출판부, 2008.
- Wendel, François.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White, Robert. “Oil and Vinegar: Calvin on Church Discipline.”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38 (1985): 25-40.

*Abstract***Calvin's Church Reformation and Preaching**

Lee, Seung-Jin

Calvin understands the church as mother of believers through which God is pleased in bringing up the weak believers. Calvin also explains the church with the terminology “visible” and invisible” Church. As for Calvin, the most important task of the minister is to see to it that the pure Word of God is preached and the sacraments are rightly administered. Since the preaching of the Word and the ad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 are absolutely essential for the existence of the church, a ministry of the Gospel has the crucial importance for the church. These two marks of the church are to intend the believers to meet God and listen to the Word of Him. Therefore, the church must appoint and ordain suitable persons to this office. Calvin also understood preaching the Word as a sacrament of the saving presence of God. In other words, when preaching the Word, God is believed to be present to His people and speak them just as in administering the sacraments of bread and wine.

Calvin's sacramental view of preaching seeks the believers in preaching to join the Christocentric salvation history through which they could reform their world views and lives. In this reason, we can say that Calvin's sacramental view of preaching has to do with the Christocentric interpretation of the Bible. Calvin wanted to find Christ and Christocentric salvation history from all the Scriptures. Through preaching and education Calvin tried to share his Christocentric salvation history

world-view with the Genevan people. Calvin's Christocentric interpretation and shared viewpoint about God, world, and the self in the Genevan church offered a cognitive infrastructure and effectively worked as a communal foundation for the church reformation. In this reason Calvin could be seen as a narrative theologian who understands the history in the Bible extended to the history of the living world in a realistic manner of the Biblical narrative.

However, Calvin didn't suggest 'preaching ministry only' in the church reformation. Rather Calvin insisted the importance of the right administration of discipline, and tried to reserve this religious authority under the church consistory rather than the governmental authority of the Council. For Calvin, without the church discipline, preaching the Word and administering the sacraments themselves are not enough for the believers to observe and follow the Word of God. In conclusion, the right model for the Korean Church reformation could be acquired from Calvin's Church reformation through the sacramental presence of God in preaching, Christocentric salvational history interpretation of the Bible, communal cognitive infrastructure shared in the textual community, and the church discipline oriented to the holy city of God.

Key-Words: John Calvin, Church Reformation, Redemptive Historical Interpretation, Textual Community, disciplines